

# 봐주기 의혹에 광주서부경찰 왜 이러나 눈치보기까지

## 여성 사채업자 수백억대 사기극 수사 답보

### 6개월 지나도 단서조차 못찾아 타 경찰에 공조 요청도 못해 수사 초기 안일한 대응에 잠적 초래...출국금지도 두차례나

광주서부경찰이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수백억대 사기극, 21대 총선 선거 사건 등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고소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신병 확보조차 못하는가 하면, 5개월째 선거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못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이 지역 유력 인사들과 관련된다. 다른 경찰서의 유사 사건 수사 진행 속도에도 대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총선 수사 의지 있나”=광주서부경찰이 진행중인 21대 총선 관련 수사는 모두 3건으로, 여태껏 피고발인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부경찰은 불법 전화방을 설치하고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 후원회장 의혹 관련 수사 등을 진행중이다.

이들 사건은 지난 3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5개월이 다 되도록 피고발인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에 경찰 설명이다. 5개월동안 밝혀낸 것

없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향자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광주지방경찰청이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 28건 중 마무리하지 못한 게 5건에 불과한데, 이중 서부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3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지진부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은 28건 중 23건(기소외견 송치 14건, 불기소외견 송치 3건, 내사종결 6건)을 마무리한 상태다.

“관련자들이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서부경찰 입장이지만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혐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광산경찰이 5개 혐의(허위사실유포 3건, 금품살포 1건, 권리당원 정보 무단 취득 1건)로 고발된 민형배 의원의 수사를 지난달 말 종결한 것을 놓고 수사 진행 속도를 비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10월 15일까지로 2개월 남짓 남았지만 5개월간 피고발인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적당히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50대 여성 사채업자 안잡나”=서부경찰이 수사중인 50대 여성 사채업자 사기 사건은 아예 ‘개점휴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1월 말께 첫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6개월이 넘도록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신병 확보를 위한 단서를 잡지 못하다 보니 다른 경찰서나 타 지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수사 초기 안일한 판단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1월 말께 고발장을 접수받은 이후 A씨와 통화, 출석을 요구했고 응하겠

##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시늉만

### 고작 3건 수사하면서 5개월간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안해 공소시효 만료 2개월 남았는데...타 경찰서 수사 속도와 대조

다는 답변을 그대로 믿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곧바로 잠적했다. 경찰은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3월 말에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행적이 묘연하자 4월에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한 달 일정으로 해놓았다가 기간 내 A씨를 붙잡지 못하면서 출국금지 기간을 늘렸다. 쉽게 검거할 것으로 예측했던 애초 판단이 빗나갔다는 얘기가.

피해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면서 “도대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사가 지진부진하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A씨가 폭 넓은 인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점에 주목, 경찰 지휘부와 인맥이 얽혀있어 수사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의혹마저 흘러나온다.

경찰은 또 A씨가 잠적한 뒤 쉽게 검거할 것으로 오판하고 A씨에 대한 1개월짜리 출국금지를 4월 중순에 신청했다가, 검거가 되지 않고 기간만 만료되자 5월 중순에 3개월짜리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가용할 수사방법을 모두 동원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특정후보 지지 의혹 광주 전공노 2명 구속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국공무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5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 등은 전공노 광주본부 지부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올해 2월 20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열린 간부 수련회의 참석자에게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련회에는 해당 후보도 참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정치 자유가 공무원에게도 동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폭우 대비해 만든 배수로 정밀비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주 중흥 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5일 오전 폭우에 대비해 공사 관계자들이 배수로를 만든 뒤, 축대를 방수포로 덮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벌에 쏘이면 곧바로 119 신고하세요”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당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9월에 야외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벌집 제거 출동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238건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는 평균 110명의 환자가 벌에 쏘여 병원에 이송됐고 이중 55%는 8월과 9월에 집중됐다.

벌에 쏘이면 보통 통증, 부종, 가려움증 등 피부에 한정하는 국소반응을 일으키지만 일부 벌독에 민감한 사람 즉, 벌독 알레르기 환자가 벌에 쏘일 경우 혈압이 떨어지고 목

이 붓는 등의 전신반응이 오기도 한다.

실제 지난 7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70대 남성이 벌에 쏘인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호흡정지 증상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으나 보호자의 빠른 신고와 119구급대의 적절한 응급조치 덕분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정자 광주시 구조구급과장은 “벌에 쏘일 경우 카드를 이용해 벌침을 제거 하고, 쏘인 부위는 비누로 세척하는 것으로 1차 응급조치는 된다”며 “그러나 통증, 가침 등 증상이 지속되거나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 병원이송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각급 검찰에 위임한 국가소송 권한 법무부로 일원화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승인 권한을 되찾아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 줄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권과 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추후 법무부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국가 소송 체계 개편을 위해 법무실 아래에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가 송무과도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꿔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

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전국 각급 법원에 국가 송무 사건이 산재하면서 법무부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기 어려워지자 법 개정을 통해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해왔다.

송무심의관이 새로 생기면 법무부는 행정소송의 승인·지휘와 국가소송의 승인을 담당하고, 검찰은 국가소송의 지휘만을 담당하게 된다. 승인은 소송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소의 제기 및 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운영된다. /연합뉴스

## ‘충장으로 오래된 가게’ 출판기념 8일 북콘서트 개최

30년 이상 충장로에서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출판기념회를 연다.

5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30년 동안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발자취를 담은 ‘충장로 오래된 가게’ 출판기념 북콘서트 가 오는 8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57가 충장 22에서 열린다.

행사는 기념식 및 유공자 감사패 전달식에 이어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충장로로 시

간여행을 떠나는 감동을 불러일으켜 줄 음악공연 등도 곁들여질 예정이다.

책은 충장로4-5가 상인들의 태동, 도시 개발의 흥망성쇠, 충장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2년여 준비 끝에 출간된 책은 충장상인회와 임인자·황지은 작가가 참여했으며 충장로 상점가의 역사성과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오래된 가게 동판 작업에서 출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ovelyline4u.com

신세계 선이고운치과교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0(농성동) 밝은클리닉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천변방향  
T. 062) 367-2279 | F. 062) 367-2280

■ 원장 | 교정전문 이기현 | 김고운

www.cihospital.com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 · 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건강한 생명, 행복한 미래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원장 이삼용

통합콜센터 1899-0000  
응급의료센터 062.220-6801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정종훈

■ 대표전화 062)220-3114 ■ 종합건강검진센터 062)220-3030  
■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CHONGANG HOSPITAL

중앙병원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인공신장실, 재활한방과

내과전문의의약박사 내과전문의의약박사  
이강수 홍순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4(화정동)  
T. 062.456-6600 F. 062.456-6601

마음까지 치료하는 더 큰 사랑

침던종합병원  
CHEOMDAN MEDICAL CENTER

병원장 양원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던중로 170번길 59(쌍암동 665-1)  
■ 대표전화 : 062)601-8000 응급의료센터 062)601-8119  
■ 홈페이지 : www.cheomdanhosp.co.kr